

# 美 대학 '親팔 시위' 체포 인원 1천명 넘어...전세계 확산 조짐

### 유럽·호주·캐나다 등의 대학서도 반전 합성 컬럼비아대 시위학생들, 교내건물 점거 농성

미국 대학가를 휩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 대학에서도 이어지며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위로 체포된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위의 진앙으로 여겨지는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는 자진 해산을 거부한 시위대에 대한 정학 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30일(현지시간) 이른 오전에 교내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AP통신,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미국 동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재점화한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는 미국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의 50여개 대학 캠퍼스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 시앙스파 파리 캠퍼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수

백명이 동조 시위에 나섰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학생 수십명이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영국에서는 리즈대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워릭대 캠퍼스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사피엔자대와 호주 시드니대, 캐나다의 일부 대학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달 18일 컬럼비아대에서 학생 100여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미국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10여일 만에 미국 전역의 대학 수습 곳으로 번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1천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29일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는 텐트 농성을 시도하던 시위대 4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전쟁 반대 시위 중인 학생들이 학생처장실이 위치한 해밀턴홀을 점거, '힌드스 홀'이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AFP=연합뉴스

과정에서 호주 스프레이 등이 동원되기도 했다.

컬럼비아대에서는 자진 해산을 거부한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정학 처분이

시작되고 일부 학생들이 한밤 중 교내 건물을 기습 점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 5월 초에 봄 학기가 마무리되

는 미국 대학들은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캠퍼스를 점령한 시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서던캘리포니아

대(USC)는 5월10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 메인 무대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USC는 "졸업식의 보안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학생과 가족, 친지 등 6만여명이 모이는 메인 무대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다만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는 개별 단위의 졸업식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점거농성에 들어간 컬럼비아대 학생단체는 인스타그램에 "(시위대는) 일을 직접 해결해왔다"며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 기업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건물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올린 글에서 '컬럼비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치단체'가 건물을 차지한 것이라며 해당 건물을 '힌드스 홀(Hind's hall)'이라고 불렀다.

힌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5살짜리 소녀 힌드 라자브의 이름을 딴 것으로, 힌드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1월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98세 우크라이나 노파, 10km 걸어 러 점령지 탈출

### 슬리퍼 신고 지팡이 의지한 채 천신만고 끝 가족 재회

98세의 우크라이나 여성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홀로 6마일(약 10km)을 걸어 러시아 점령지에서 탈출했다. <사진> 그는 탈출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과도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다.

리디아 스테파니우나 로미코우스가 할머니는 지난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투가 격화되자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의 최전방 마을인 오체레티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할머니는 도네츠크 경찰이 게시한 영상 인터뷰에서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잠에서 깬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출발 당시 혼란 속에서 그는 아들과 두 며느리 등 가족과 헤어지게 됐다. 젊은 가족들은 우회로를, 자신은 주도로를 탈출로 택했다. 가족 중에는 며칠 전 파편에 맞아 다친 이도 있었다.

한 손에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나무 조각을 들고서 몸을 지탱한 할머니는 음식과 물 없이 하루 종일 걸어 탈출에



성공했다. 피난 과정은 험난했다. 두 번이나 넘어져 쉬어야 했고, 한번은 잠을 자고서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번은 균형을 잃고 잡초 속으로 넘어졌는데 잠이 들었고 잠시 후 계속 걸었다. 그리고서 다시 넘어졌다"며 "하지만 일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홀로 길을 걷던 할머니는 늦은 오후에야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연합뉴스

## '소녀상 전시반대' 日시장 "조국 위한 죽음은 도덕적" 발언 논란

### 시민단체 "희생 미화"·시의원 "부적절" 지적에도 철회 안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 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일본 나고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으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정한 '나고야 평화의 날'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

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요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평양전쟁 전사자를 포함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민 희생을 미화했다"고 항의했고, 나고야 시의회 자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 기반은 살육으로,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와무라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말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발언을 고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세계는) 안타깝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매우 많은 사람을 죽

였다"며 "조국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죽음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 덕분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면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근현대사 연구자인 쓰지타 마사노리는 아사히에 "전쟁에서 죽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권장해야 할 좋은 행위가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올림픽 성화 봉송 거부한 환경단체 "코카콜라 때문"

프랑스의 한 환경 단체가 코카콜라가 후원하는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의 환경단체 '칼랑크 정화'는 8일 마르세유에서 시작하는 성화 봉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칼랑크 정화'는 마르세유 주변 해안과 인근 칼랑크 국립공원의 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단체는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어린이 교육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받는데 이어 성화 봉송 참여를 제안받았다.

단체의 설립자인 에리크 아코피안은 그러나 "우리는 허리 굽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대는 성화를 봉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 중 한 곳"이라며 "단체가 해안 청소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하는 것 중 일부가 코카콜라 병과 캔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스포츠나 선수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둘러싼 모든 것, 즉 스폰서 등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올림픽의 상업적 측면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언급했다.

아코피안은 올림픽과 관련한 열쇠고리나 펜, 마스크 등 인형 등 이른바 '굿즈'의 대량 생산도 비판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네·함께·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락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